



# 대한국제법학회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수신 : 대한국제법학회원님

제목 : 이용호 학회장 퇴임사

---

##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퇴임 인사말

존경하는 대한국제법학회 선배, 후배 및 동료 선생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세월이 참 빨리 흐르네요. 잘 지내고 계시지요. 덕분에 지난 1년 참 행복했습니다. 2023년 새해 건강하시고 좋은 기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각종 행사들이 대부분 대면의 형식으로 재개되었음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지방과 서울을 오가면서 학회의 발전을 위해 깊은 고민에 잠겼던 일은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아무튼 맡은 직분을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회원 선생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아래의 2가지 원칙 하에서 학회의 대소사에 임해 왔습니다. 하나는 학회장이라는 자리는 봉사하는 자리라는 점입니다. 조금의 사심도 없이 학회의 발전을 항상 첫 자리에 두고 지난 1년을 보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학회의 운영을 각 직무이사에게 전적으로 맡기면서, 최종책임은 회장 스스로 지겠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실수 없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부회장님들과 직무이사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뛰어난 집행부 덕분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관기관의 방문을 재개한 일부터, 각종 모의재판 및 논문경시대회, 각종 학술대회, 학술지평가작업, 저명학자 초청 간담회, 정년기념 논문봉정식 개최, 각종 논총발간 등 통상적 사무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학회 창립 70주년 준비사업’ 및 ‘교수 및 연구자양성 기초조사위원회’ 활동은 새롭게 시도되었습니다. 아울러 학회기금관리의 강화, 행정시스템의 전산화 등도 새롭게 시도한 일로서 새삼 기억이 납니다.

반면 제2의 도약을 위한 학회의 활성화라는 목표, 외국의 학회와의 교류, 교수 및 연구자의 양성프로젝트 등에서는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린 셈이 된 것 같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존경하는 강병근 회장님을 중심으로 2023년 집행부에서 잘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족함이 있었고, 일을 하면서 뜻하지 않게 불편함을 드린 일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헤량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함께 했던 좋은 일은 오래 기억해 주시고, 부족하고 불편했던 일은 저 한강에 흘려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이임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대한국제법학회의 선배, 후배, 동료 선생님들의 묵묵한 관심과 애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70주년 준비위원회, 교수 및 연구자 양성기초조사위원회, 독도센터, 영문저널편찬위원회, 국제법사전편찬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 선생님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학회운영에 많은 도움을 준 외교부, KIOST, KMI, 경상북도, 사법정책연

구원, 국립외교원, 성균관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많은 기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성균관대학교와 성재호 교수님의 배려는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병근 수석 부회장님, 조희문, 강준하 부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연경 총무이사님, 이길원 연구이사님, 박미경 출판이사님, 이세련 국제이사님, 박진아 학술이사님, 원유민 기획이사님 그리고 이경은 사무국장님의 헌신과 노고를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덕분에 참 행복했습니다.

정년을 맞으신 박기갑 교수님, 큰 축하의 마음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더욱 열정적인 삶을 기대합니다. 공로패를 받으신 이근관 교수님, 공로상을 수상하신 김부찬 교수님, 현민국제법학술상을 수상하신 소병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1월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이용호 올림